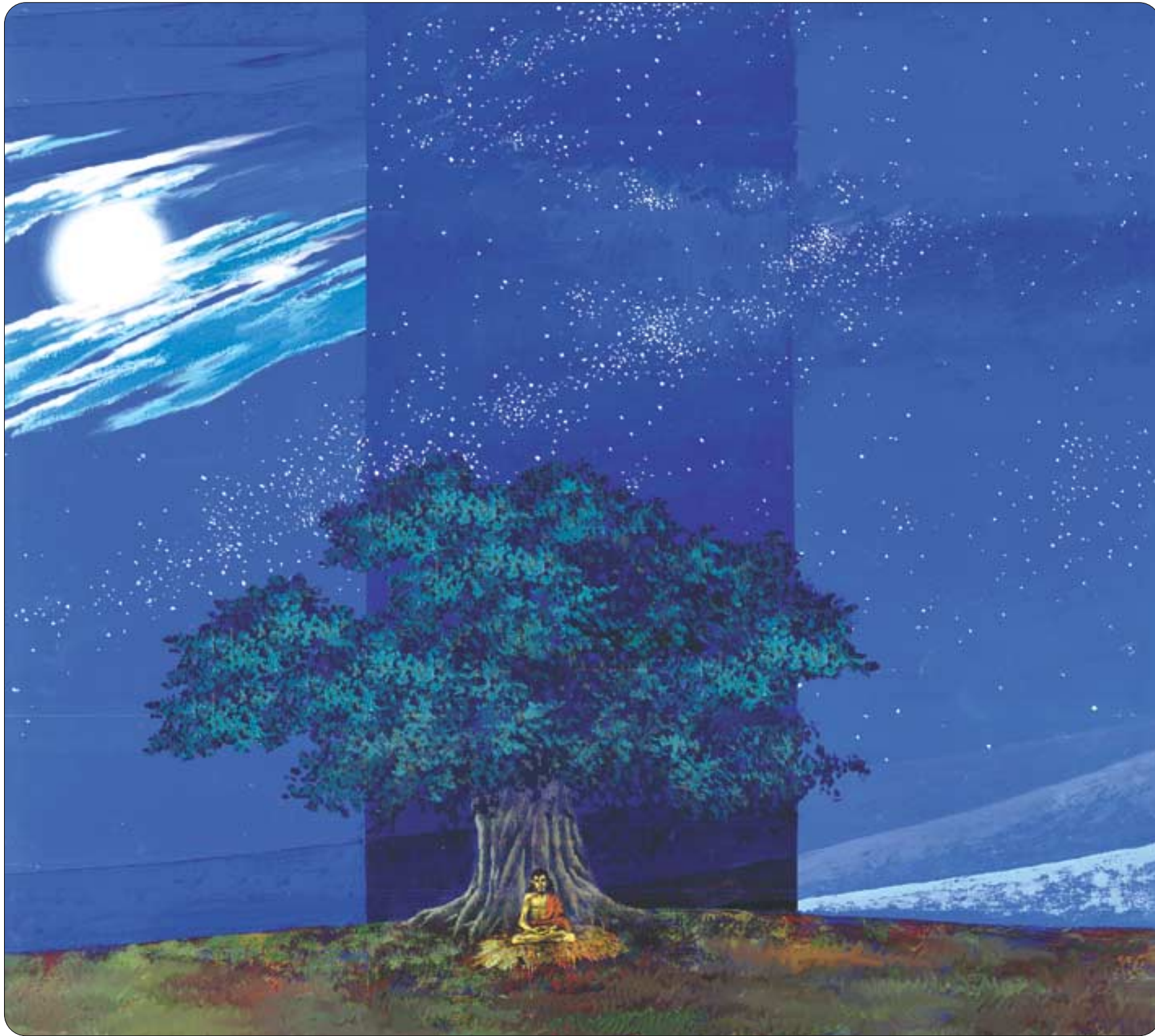


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부처님

제21화 싯다르타의 상념



시 간이 흘러 새벽이 다가올 무렵, 사카무니 싯다르타는 지금까지의 생각을 다시 정리해 본다.

먼저, 인간의 실존은 괴로움이다. 인간이 살아가며 행복한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필연적으로 벗어날 길이 없는 조건으로서의 괴로움이다. 그러면 그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인간의 생존에는 욕망이 본능적으로 깔리고, 이 욕망은 갈등을 부른다. 인간은 무명(無明, 진리를 모름)으로 인해 맹목적으로 욕망을 추구하고 그로 인하여 갈등과 갈망의 괴로움에 빠지고 만다. 그래서, 털어버림은 괴로움의 원인인 갈망, 즉 번뇌를 없애는 길이요, 괴로움을 없애는 길이다. 결국, 털어버리는 방법으로 는 길(道)이 있어야만 한다.

인간의 실존이 즉 괴로움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것을 확실하게 분석해 내야만 했다.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갈망과 번뇌를 없애고 덧없는 인간의 존재를 초월하여 열매없는 것은 것이 괴로움이 없는 깨달음의 경지일 것이라고 정리했다. 그러면 그 깨달음에 이르는 실천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다.

이상의 네가지 진리는 바르게 보아야하고 올바른 뜻을 가져야 하며, 바르게 말해야 하고, 바르게 지어가야 하며, 바른 일을 해야하고, 바르게 정진해야 하며,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마음을 모아야 한다. 이 길은 바르고 거룩한 여덟가지의 길로써 이 길을 통하여 열반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나도 이제 이것들을 실천하여 지혜가 열리고 걸리는 것이 없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밤의 마지막 시간, 즉 밤에서 아침으로 바뀌는 찰라였다. 붉은 기운을 띤 새벽이다. 이제 생사(生死)의 근본인 무명(無明)이 소멸되면서 동쪽 하늘에 샨별이 반짝 떠오르고 있었다. 순간, 싯다르타의 얼굴에 형언할 수 없는 법열(法悅)이 피어 올랐다. 깊고도 힘있던 성도의 길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되었던 것이다.

이때 싯다르타가 한 찰라에 파악한 것은 최고의 지혜에 의해서 가장 올바른 깨달음인 무상정등각(無上正等覺)으로서, 음역(音譯)하여 “아누타라삼막삼보리(Anuttara-Samyak-Sambodhi)라고 한다. 즉, 무상(無上)의 올바른,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뜻인데 간단하게 정각(正覺)이라 하기도 한다. 삼막(Samyak)은 올바른, 그리고 삼보리(Sambodhi)는 완전한 깨달음을 의미하여 진리에 눈을 뜬 최고의 깨달음인 것이다. 이후로부터 싯다르타를 붓다라고 부른다. 붓다(Buddha)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붓다는 불타(佛陀)라고도 하고 부처님이라고도 불리운다.

이미 부처님의 경지에 올라섰으나 그래도 의심스러운 자신의 깨달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 결국 인간의 실존은 괴로움(苦)이고 괴로움의 원인은 밝혀야 하며 그 결과 갈망(Kama)을 원인으로 분석하여 갈망을 없애기 위해서 올바른 도(道)를 행해야 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불교의 실천덕목인 것이다. 이상의 4가지 즉 고(苦), 집(集), 멸(滅), 도(道)를 사성제(四聖諦)라 한다.

아침에 찬란한 햇빛이 새로운 붓다의 탄생을 축하하는 듯 비쳐왔다. 자리에서 일어난 부처님도 오래간만에 흡족한 미소로 햇빛을 안았다. 붓다는 그동안 자신을 지켜준 하늘의 여러 신들에게 감사의 노래를 불렀다.

“아! 번뇌는 모두 없어져 버렸다. 번뇌의 흐름도 모두 멎었다. 이제 더 이상 태어나는 길을 따르지 않으리니 이것을 고뇌의 마지막이라고 말하리라.”

때는 인도의 달력으로 바이사카 달(吠舍·月)의 보름날이었다. 이것은 우리 달력에서 12월 8일에 해당하고 인도에서는 일 년의 첫째 달로 봄에 해당된다. 하늘의 샨별이 사라지고 밝은 빛이 대지 위를 뒤덮기 시작한다. 마침내 사카무니(Sakya Muni) 싯다르타(Siddhartha)는 성불(成佛)하게 되었다. 이때의 감동을 붓다차리타(Buddha-Carita)는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맑고 시원한 실바람이 일어났고 구름도 없이 향기로운 비가 내렸으며 묘한 꽃들이 제철이 아닌데도 피어났다. 저 하늘의 마하만다라 꽃(Maha Mandarava)과 가지가지의 보배꽃들이 하늘로부터 어지러이 내려와 저 큰 무니(Muni·

聖)를 공양하였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번뇌(Klesa)가 같기는 마찬가지니, 모든 하늘은 해탈을 즐기거나 나쁜 세계 무리들마저 편안해지고, 온갖 번뇌는 잠깐 동안 그치며, 지혜의 달빛은 점점 그 밝음을 더해갔다. 하늘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역시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심을 보고 기쁨이 충만하여 곧 그들의 궁전에서 비처럼 꽃을 내려 공양하였다.”

무상정등각(無上正等覺)이라는 최고의 깨달음을 얻고서도 자신의 깨달음을 십이인연(十二因緣)에 의하여 위에서 아래로 또 아래서 위로 몇 번이고 반복하여 검증하기를 일주일간 더 계속하고 나서야 그동안 그들을 만들어 주었던 큰 썩썩 나무 밑에서 일어났다. 이로부터 이 썩썩 나무(Pippala)나무를 ‘보리수(菩提樹)’라 부른다. ‘보리(菩提)’는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로 ‘보디(Bodhi)’인데 그 뜻은 깨달음의 지혜이다. 영어(英語)로 보리수를 ‘Bo-tree’라고 하는데 이것은 ‘bodhi-tree’를 줄인 것이다.

참으로 오랜 시간동안 부처님께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여 마침내 성도의 영광을 있게 한 고마움에서 이 썩썩 나무는 보리수라는 영예스러운 경칭을 얻게 되었고 이후 수많은 불자(佛子)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다.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신 처음 칠일동안 맨 먼저 시방세계의 모든 불·보살에게 최초의 법회(法會)를 열어 우주의 모든 이치를 깨닫는 화엄경(華嚴經, Avatamasaka)을 설하기 위하여 ‘해인삼매(海印三昧)’의 선정(禪定)에 들어계셨다 하는데, 이는 ‘Sagaranutra-Sama-dhi’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법을 함께 보는 선정을 말한다.

화엄경을 가르치신 후 칠일만에 자리에서 일어난 부처님은 동북쪽에 위치한 언덕에 올라 이번에는 그동안 자신을 지켜주던 보리수를 훑어지게 바라보며 다시 7일간을 앉아 있었다.

다시 칠일동안 보리수를 바라보면 부처님은 또 다시 자리를 옮겨 보리수의 서쪽으로 갔고 또 다시 칠일만에 아자 팔라 니그로다(Ajapala Nigrodha, 尼拘律樹) 나무 아래 정좌하여 새로운 고민에 휩싸이게 되었으니.

“이제 모든 번뇌가 끝났고 나의 목표도 달성되었다. 다만 나의 깨달음이 너무 깊고 요묘하여 또 다른 부처님과

서로 뜻이 통할 뿐 저 어리석고 혼탁한 인간들은 탐욕과 시련, 그리고 교만에 막혀 나의 깨달음을 어찌 알아들을 수 있으리오. 내 아무리 진리를 말하여도 그들은 반드시 미혹하여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비방함으로 장차 악도에 떨어져 고통을 받게 될 터이니 차라리 잠자코 열반에 드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처음부터 인간들을 번뇌의 고통으로부터 구하겠다고 노력해 온 부처님이었으나 막상 깨달음을 얻고 보니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그의 깊은 진리를 전달하기가 너무나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다. 이처럼 부처님은 겨우 번뇌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이번에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전혀 새로운 번뇌에 휩싸이게 된 것이다.

붓다는 그로부터 또 다시 칠일간을 보낸 후, 이번에는 무칠린다(Mucalind, 目支隣) 연못의 서쪽으로 자리를 옮겨 다시금 선정에 들어갔다.

